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
3 - AUG 27
Copy ____ 1962

홍 종호 그림

화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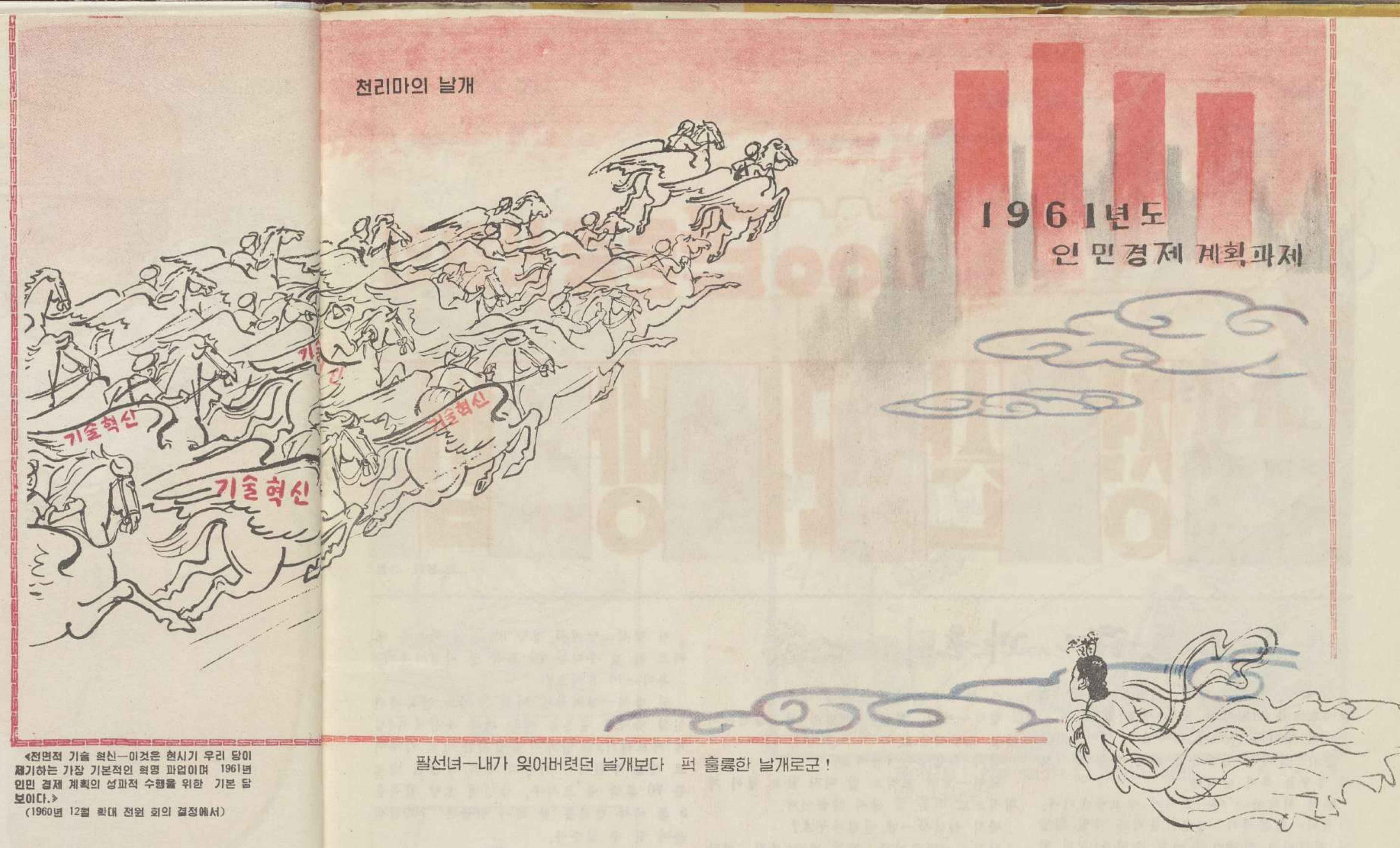
1961년 2월호 (139)

방선에서도 건설장에서도

—그 고지를 쟁탈하든 솜씨로 7 개년 계획의 고지 쟁탈전에도 참가했네

—홍 종호 그림

천리마의 날개



《전면적 기술 혁신—이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제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혁명 과업이며 1961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기본 담보이다.》
(1960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정에서)

팔선녀—내가 잊어버렸던 날개보다 퍽 훌룡한 날개로군!

박 승히 그림

보물함 열쇠

갑 여보게 친구! 온갖 물건이 쏟아지게 하는 열'쇠가 뭔지 알어?
을 밤중에 홍두깨 들어 밀듯 별안간 열'쇠는 무슨 열'쇠?
갑 아니 보물함 열'쇠 말이야!
을 보물함 열'쇠라구?
갑 그럼! 그 열'쇠로 문을 여는 곳곳에는 온갖 보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태산 같이 쌓이고…
을 뭐? 뭐? 온갖 보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태산 같이 쌓인다구?…엑키, 이 사람, 수수꺼끼도 아니고 옛말도 아닌 그런 싱거운 소리 작작하게!
갑 자! 보게 1961년도 인민 경제 계획 과제 수행의 문을 열면 말이야
을 응,
갑 더 많은 뜨락또르, 자동차, 발동선, 각종 기계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고, 직물, 신발, 식용유, 두부, 각종 생활 필수품이 폭포처럼 쏟아져서 태산 같이 쌓이고…
을 여보게 그것 진짜 보물함 열'쇠로구만!… 근데 도대체 그 열'쇠가 무슨 열'쇠인가?
갑 자네 확실히 평소에 공부하지 않고 있는 것만 틀림 없네
을 뭐? 그만한 것 가지고 학습을 안 했다구 평가할 수 있어?
갑 평가할 수 있지! 평소에 신문만 잘 봐도 인차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모르고 있으니 말이야… 아, 작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당이 가리킨 열'쇠가 아닌가!
을 아하—, (무릎을 치며) 알았네, 7 개년 계획의 첫 고지를 점령하는데 담보로 되는 열'쇠… "전면적 기술 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 말이지
갑 그렇지 그래, 그것이 바로 첫 고지 점령을 위한 열'쇠란 말이야
을 알만하네!
갑 지금 우리 근로자들은 이 열'쇠를 틀어쥐고 박차고, 일으키고, 올리고 있거든!
을 아니? 박차고, 일으키고, 올리다니…
갑 온갖 신비주의, 보수주의, 소극성을 박차고, 기술 혁신을 일으키고 증산과 절약의 불'길을 세차게 올리고 있다는 말일세!
을 정말 그렇지, 공장, 광산, 농촌, 어촌들에서 기술 혁신과 증산 절약 투쟁이 료원의 불'길처럼 타고 있으니…
갑 그 기세는 태산이라도 옮겨 놓을듯 하고…
을 그 열매는 날마다 커져만 가고…
갑 그러니 여보게! 문제 없지, 문제 없어!
을 아니, 뭐가 문제 없단 말이야?
갑 뭐긴 뭐겠나, 7 개년 계획의 첫 고지를 문제 없이 기한 전에 점령할 수 있단 말이지!
을 여, 여보게 친구! 내 간이 슬슬 녹는 것 갈네!
갑 아니, 별안간 왜 이래 응? 자네 간은 엿이나 사탕으로 되여 있나?
을 증산과 절약 과제를 완수한 그 날에는 우리 인민 생활이 더욱 더 꽃 필 것을 생각하니, 생각만해도 가슴이 흐뭇해서 간이 슬슬 녹는 것 같단 말이야!
갑 그러니 꽃이 핀 그 우에 더욱 꽃이 핀 우리 생활에 인민들은 흥겨워 노래하고 춤 추고…
을 정말 그 고지에 올라 서면 우리 인민 생활은 획기적으로 개선돼 나갈 것이 아닌가.
갑 그러기에 7 개년 계획의 첫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우리 근로자들은 지금 „전면적 기술 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의 열'쇠를 억세게 쥐고 자기들의 있는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대렬 지어 씩씩하게 나가고 있지 않나!
을 청산리 정신을 받들고 청산리 방법으로 일하는 영웅적인 우리 근로자들의 대렬! 그 속에 자네도 발 맞추어 나아가고 있으니…
갑 고맙네! 우리 다 같이 7 개년 계획의 첫 고지 점령을 위하여 보물함 열'쇠를 굳건히 틀어 쥐고 증산과 절약의 불'길을 세차게 올리며 나아 가세!
을 나아 가세!

피 호주

허 능택 그림

들끓는 마을

△ 밤중. 향동리 민주 선전실 안에서는 남녀로소가 뒤섞이여 춤을 추고 있다.

이때 철이와 옥이가 나타난다.

철이—우리는 관광단입니다. 저는 철이고 이 동무는 옥이 입니다.

관리 위원장— 예—오시기 수고했습니다.

철이—정평에서 영농 준비가 제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기에 영농 준비가 제일 활발한데서 내렸더니 틀림 없이 그곳이 정평역이더군요!

옥이—그런데 할아버지 무슨 경사가 났습니까?

할아버지—(춤을 그냥 추며) 수상님 은덕이 너무 고마워 춤 추오. 수상님이 오시여서 우리 살림을 보살펴 주시고 카바이트 재까지 보내 주셨다오.

그래서 산성화된 땅을 개량하고 자급 비료를 많이 내면 매마르던 이 땅에도 풍년이 들어서 집집마다 곡식 가마니 더 높이 쌓일텐데 춤이 어이 안나겠소. 더구나 당이 내세운대로 100 만 톤을 더 내면 이제 우리 살림이 얼마나 꽃 피겠소!

△ 그때 춤을 추던 김 화일 조합원이

—우리는 이 길로 들어가 잠 들 수 없습니다. 뜨락또르 다닐 길을 닦으려 나갑시다!

조합원들—그럽시다! 관리 위원장 동무 우리의 힘은 무진장하니 지시만 주십시오!

—당과 수상님이 가리키신대로 매 필지와 이랑마다에서 다수확을 얻자면 철을 앞당겨 농사 차비를 해야지요.

—수상님이 보내 주신 카바이트 재를 제가 가 실어 오겠습니다!

옥이—참 기세가 대단하군요!

△ 철이와 옥이는 논판에 나섰다.

철이—여긴 청산리 방법이 잘 실천되지 않는 모양이군요.

관리 위원장—어째서요?

철이—로력 조직도 잘 되지 않고 일이 계획적으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관리 위원장—잘 안된다구요?

철이—그렇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변동하면서 주먹치기로…

관리 위원장—무슨 일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철이—저 분은 이자 금방 니탄을 실던데 지금은 모래 운반하는 데 넘어 가서 일하니 말입니다.

관리 위원장—하하 그것 말입니까?! 그건 계획을 아주 썩 잘 세운 겁니다!

철이—잘 세워요?!

관리 위원장—그 동무는 모래 운반조에 넘어 간 것이 아니라 갈 때는 니탄을 싣고 올 때는 랭상모판에 쓸 모래를 운반해 오고 하는 겁니다!

철이—(무릎을 탁 치며)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12월인데 벌써 랭상모판 용 모래를 운반해요?

관리 위원장—그렇지요. 보통 때 3월에 하던 일을 지금 하지요.

△ 철이와 옥이는 한 농가에 들렸다.

옥이—할아버지, 늙으신 몸에 밤중에까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김 병식—우리 손녀애가 자기는 밤을 리용해서 유기 광물질 비료를 40 톤을 만들겠다면서 경쟁을 걸자기에 경쟁을 걸었쉐다.

옥이—40 톤이요?!

김 병식—당에서 정당 30 톤씩 거름을 내라고 한 걸 우리는 70 톤씩 낼 작정이우다.

옥이—70 톤이요?!

김 병식—신바람이 나게 됐지요. 쌀독에서 인심 난다구 일본놈 때는 너무 못산데서《정평 짜드레기》란 말까지 들었지만 이제 카바이트 재를 뿌린데다 이렇게 유기 광물질 비료를 70 톤씩 내 보시우. 금년엔 호당 알곡을 5 톤 다각 경리를 잘 해서 현금은 700원씩 돌아 갈 수 있수다.

△ 철이와 옥이는 또 논밭에 나갔다.

그때 렬차가 지나 간다.

옥이—아니 렬차에서 웬 일이예요?! 려객들이 막 손을 흔들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철이—옥이, 저길 보우 저길! 눈이 덮인 눈 우에서 조합원들이 뜨락또르와 함께 전투하는 것처럼 불꽃 튀게 일하는 걸 보고 손을 흔드는군 그래!

옥이—우리도 찬사를 보냅시다.

철이
옥이—여러분! 수고들 하십니다—

이때 뜨락또르가 전 속력으로 지나간다.

철이—아니 웬 일이요?! 금방 수리하는데 사흘은 걸리겠다더니

운전수—어떻게 되긴요. 지금 욕을 먹구

철이—욕을 먹다니요. 누구한테서요?

운전수—내 량심한테서요. 량심이 (조합원들은 저런 기세로 일하는 데 사흘이 뭐요!!)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옳소! 내가 잘못했소!》

철이—관리 위원장 동무, 우리는 이 조합에서 참으로 감동적인 사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나라 온 농촌이 이런 기세로 내닫고 있으니 100만톤 증산은 문제 없습니다. 금년엔 꼭 대 풍작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리 윤봉

영농 준비

들도 넓히고

집도 짓고

식량도 장만하고

수레도 보수하여

봄을 앞당긴다

— 봄아가씨! 영농 준비가 다 됐으니 빨리 일어 나시오!

조 명식 그림

새 손님을 맞이하자!

안 창수 그림

전면적 기술 혁신의 불'길을 높이라 최대한으로 증산하라 절약하라! 뜨거운 심장으로 당의 부름 받아들인 영웅적 우리 인민이 일떠섰다. 강선에서 오른 증산 절약 투쟁의 첫 봉화는 료원의 불'길처럼 전국에 타번진다.

한점의 불꽃은 전국에 타번진다

 송 시엽 그림

어느날 밤에…

—어델 갔을까?

—도서실에는 없고

—구락부에도 없고

—식당에도 없으니
도대체 어델 갔을까?

—앗!! 기술 전습을 하고 있군…

김 동철 그림

천리마식 해결

—저 동무들의 결의는 좋은데 아직 자재가 도착않했으니 어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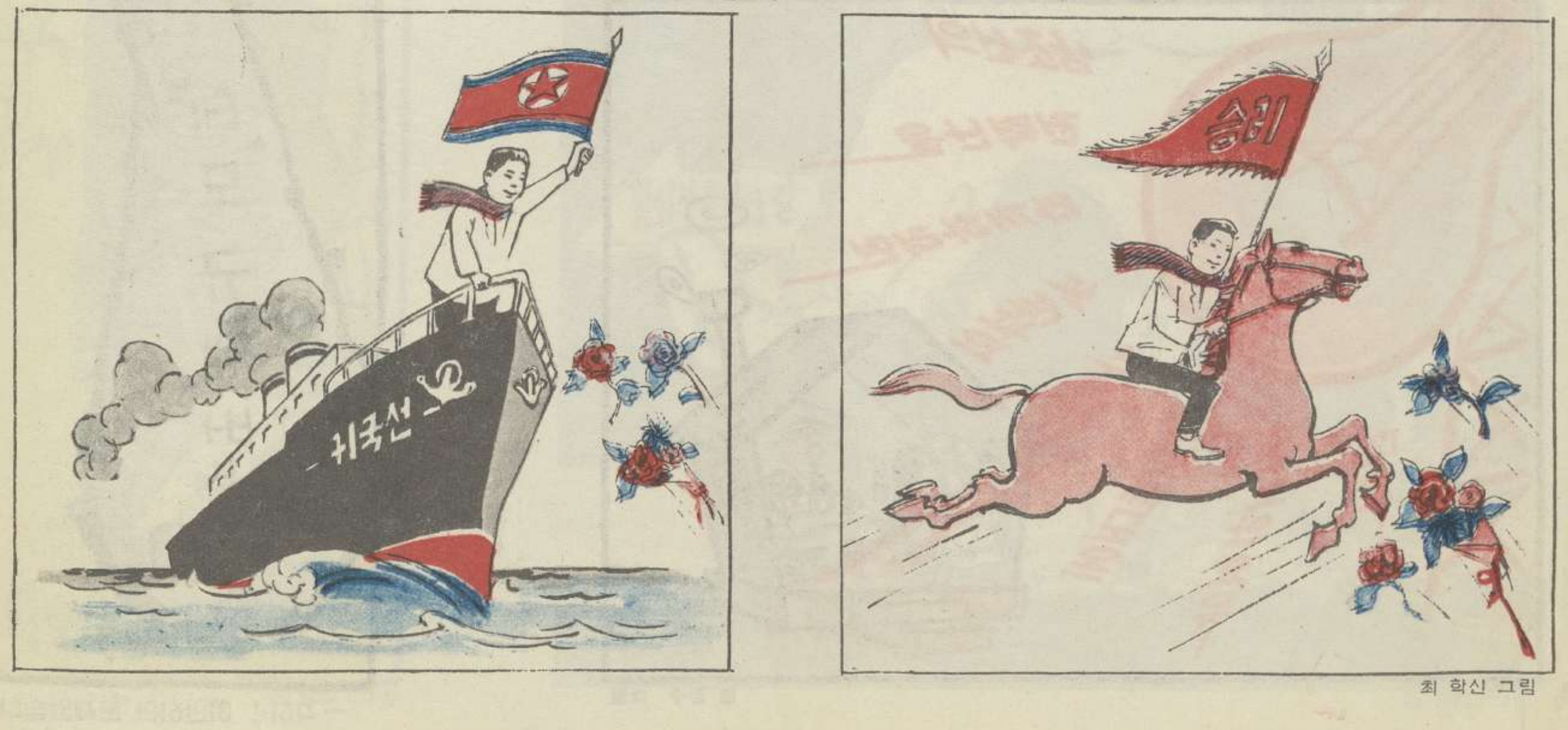
—자재를 장부에서만 찾자든 내 관점이 틀렸군.

최 영근 그림

꿀벌 주머니

원 광수 그림

옮겨 탔다



최 학신 그림

구원의 보물선

백 인규 그림

막을 수 없다

원 광수 그림

미제 남조선 제를 《재건》한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노나 주시요.

—자! 한 뭉치씩 받으시요.

박 승히 그림

민족 반역의 길로 가는 장 면

—나는 다른 길로 간다!

홍 종호 그림

장 면 도당은 파쑈 악법인 《국가 보안법》을 더욱 강화하며 생존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초보적 권리인 인민들의 시위마저 말살 유린할 것을 예견한 《데모 규제법》과 같은 새로운 인민 탄압 악법을 조작해 내려고 책동하고 있다.

장성하는 력량 앞에서

—각하! 이만하면 문제없습니다.

미제 장 면-으악 !!!

조 명식 그림

남북의 경제 문화 교류와 평화적 조국 통일의 실현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기세는 비상히 앙양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광범한 사회계와 정계의 커다란 주의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문제에 돌려지고 있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길

김 명섭 그림

같은 땅의 두 항구

북조선

남조선

먼 이국에서 갖은 학대와 멸시를 받던 재일 동포들이 환희와 꽃보라 속에 쉰 네 번째나 공화국 품속으로 돌아 오고 있건만, 최근 괴뢰 정부의 《보건 사회부》는 고아 100 명을 소위 《입양》이라는 명색 밑에 노예 매매의 중간 상인인 미국인 홀트 《양자회》에 팔아 넘겼다.

송 시엽 그림

남조선 류행어 해설

(국군편)

신 홍순

엽전 군대 나이롱 군대 요지경 군대 개판 군대

· 괴뢰군의 대명사로서 불리워지고 있는 류행어들이다. 즉 〈국군〉이란 건 엽전처럼 납짝해진 군대요. 나이롱처럼 속안이 환히 들여다 뵈는 허수아비 군대요. 거기에는 군수 물자를 떼여 먹는 놈이며 빽으로 행세하는 놈, 뢰물로 장령이 된 놈, 미국놈을 끼고 세도를 부리는 놈 등등 요지경 속판처럼 별의별 현상이 다 있어 결국 개국 개판 군대라는 것이다.

호박 사단 감자 련대 소금 대대 기합 중대 작업 소대

먹이는 건 감자에 호박, 소금국이요 받는 건 기합이요. 시키는 건 강제 작업이라. 날마다 배를 곯고 매 맞고 죽도록 일만하는 사병들이 그 증오스러운 국군살이를 야유해서 부르는 말이다.

국군에는 군이 넷이다. 륙군 해군 공군 장사군.

보급 물자 잘 떼여 먹기로 악명 높은 국군 장교들은 또 장사를 해서 돈벌이를 해 먹는다. 사병들을 시켜서 목탄도 구어 팔아 먹고, 약초도 캐여 팔아 먹고 또 빈병이며 포탄깍지 같은 것도 수집해다가 팔아 먹는다. 그래서 국군에는 군이 넷이라는 것이다.

부대에 검열 나가나 마나 보급 물자 주나 마나 정훈 교육 받으나 마나.

소위 검열이라는 것은 한 판 먹으러 가는 조직으로 되여 있다. 군단은 사단에 사단은 각 련대에 나가서 경리 정형이며 훈련 상황을 보는데 검열원이 오기만 하면 그저 술에 계집에 뢰물 뭉치를 안긴다. 왜냐면 내부 질서는 엉망인데다가 해 먹은 것이 많으니 그들을 삶아 놓아야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여 가는 것처럼 보고를 꾸며 놓으니 검열 나가나 마나요 또한 사병들에게 주는 보잘 것 없는 보급품이나마 장교들이 중간에서 다 떼여 먹고 실지 차례지는 것이 얼마 안되니 보급품 주나 마나요. 그리고 매일 같이 〈북진〉 기세를 높이기 위해서 〈정치 훈련〉이요 〈기동 훈련〉이요 하고 맹훈련을 하건만 사병들의 사기는 떼고 떨어질대로 떨어져만 가니 교육 받으나 마나 할 수 밖에.

철갑모는 고생 바가지 위생병은 고생병 공병대는 골병대.

국군 사병들은 그 고생스런 국군살이를 저주하여 이렇게들 부르고 있다. 또는 〈죽을 놈은 졸병, 맞는 놈도 졸병, 못 먹는 놈도 졸병, 떠는 놈도 졸병〉이라고 한탄을 하면서 신병이 들어 오면 〈고생문이 열린다〉고 한다.

경부상은 천환짜리, 입원하면 만환짜리, 제대되면 팔자 고친다.

사병들은 그 지긋지긋한 국군 살이를 어떻게 하면지 벗어 나려고 애를 쓴다. 자기 다리를 자기가 쏘는가하면 며칠씩 우정 굶어 생병을 얻는 등 별별 수단을 다 써서 제대할 궁리만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말까지 널리 류행되고 있는 것이다.

삼인조 몽땅 하와이.

〈하와이〉란 말은 〈도망치고 돌아 오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고 있다.

〈삼인조〉란 도망병이 하도 많이 생기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사람씩 짝을 지어 호상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삼인조〉는, 밥 먹으러 갈 때나 일하러 나갈 때나 잠을 잘 때, 심지어는 변소에 갈 때에도 셋이 꼭 같이 다니게 마련인데, 그것도 보통 걸음세가 아니라 항상 급보로 뛰여 다니게 되는데 이것을 〈삼인조 3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실시한 후부터는 이 〈삼인조〉가 몽땅 도망을 쳐 버린다. 즉 (삼인조 몽땅 하와이)가 되고만 것이다.

(국군 맹세)와 장교들의 별명.

소위 (국군 맹세)라는 게 있는데 사병들은 이것을 그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반대로 꾸며 가지고 부른다.

《첫째 우리 국군 사병들은 식사에 용감하고 제대엔 활발하고 후퇴에는 앞장 서자!

둘째 우리 국군 사병들은 공격 명령이 내리면 〈엠. 원 총〉꺼꾸로 메고 부산으로 향해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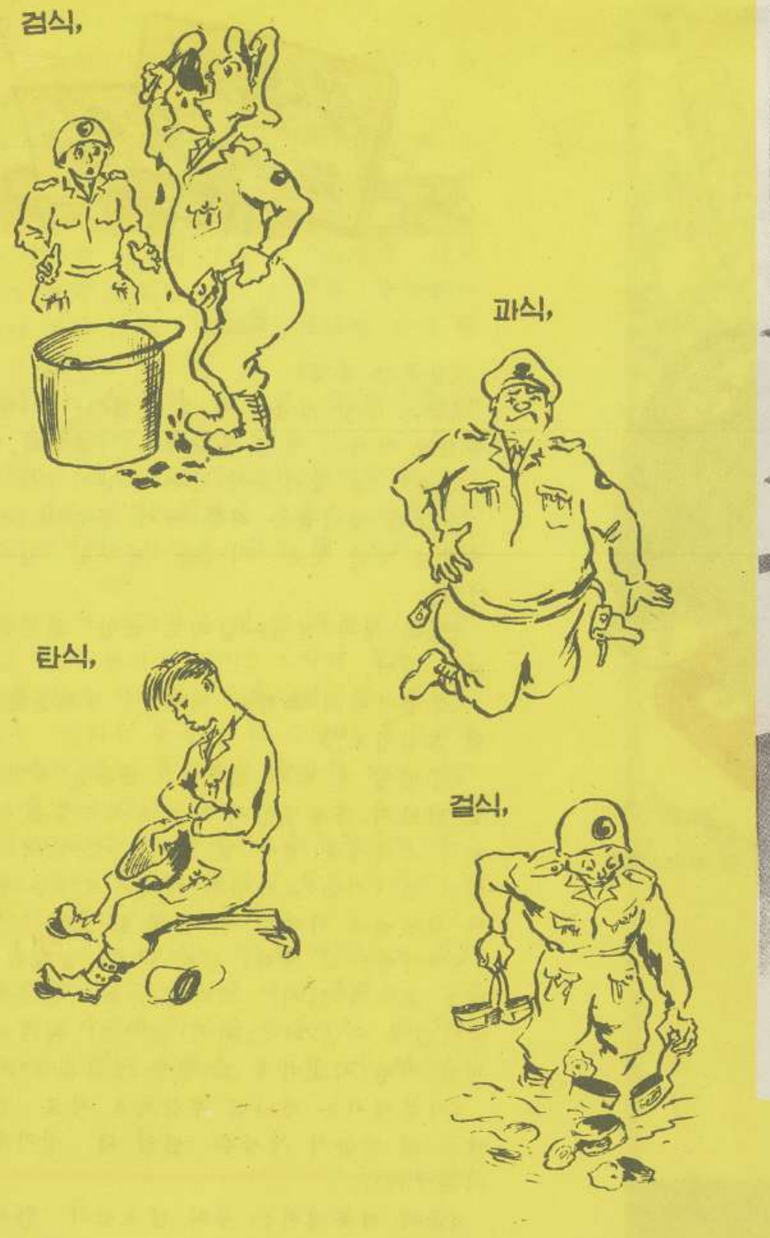
괴뢰군의 《식》 타령

검식,

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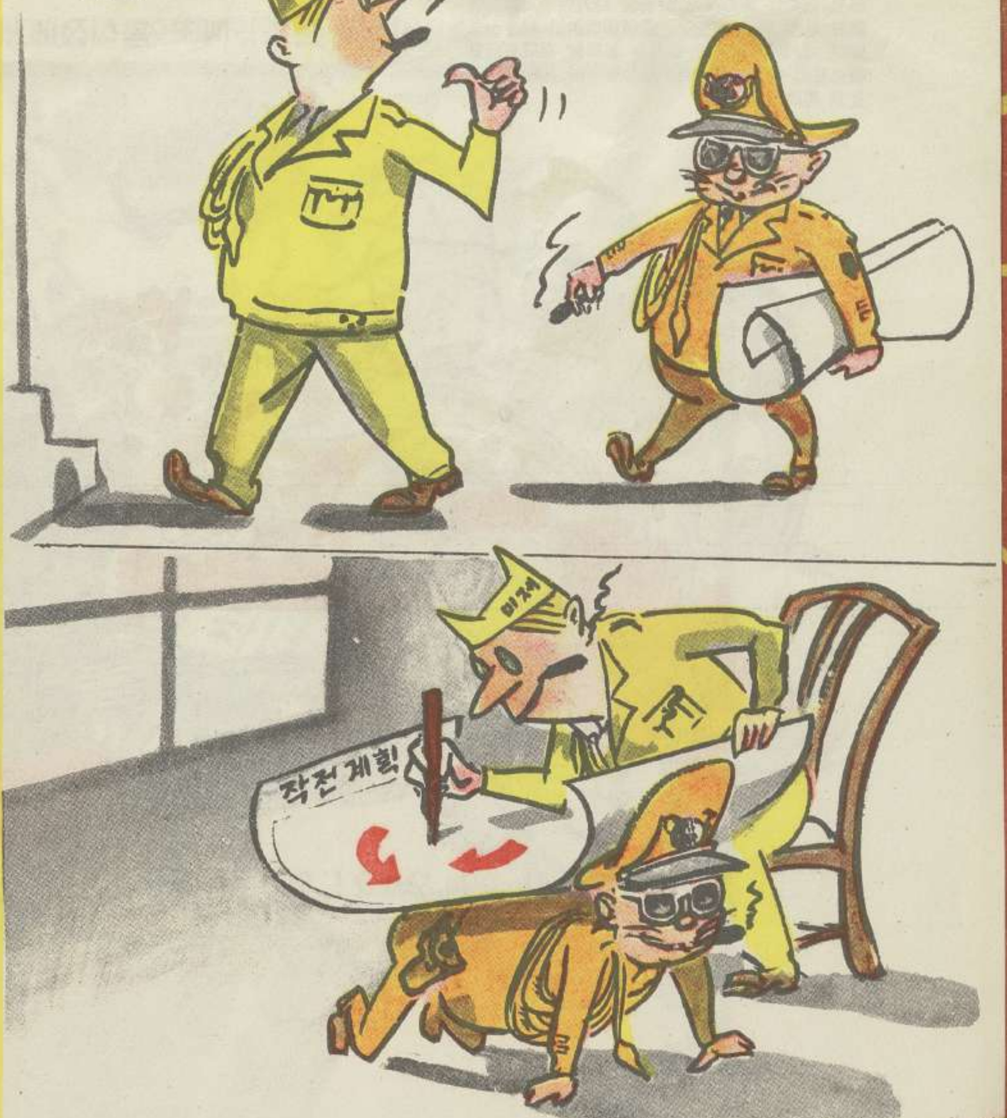
탄식,

걸식,



괴뢰 참모장의 직분

미군 고문—여보 참모장 작전 계획을 세웁시다



백 인균 그림

찢어진 그물

남조선 청년들은 치욕스러운 괴뢰군 살이를 계속 완강히 반대 거부하고 있는바 경상북도에서만도 최근에 1만 5천 여 명의 청년들이 괴뢰군에의 입대를 거부하였다.

백 인균 그림

망할자식,

장례식,

삼십륙계식.

평양시 신 성희 그림

미제는 남조선에서 위기에 처한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일본 독점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일제는 미제의 이러한 흉책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침략적 야망을 실현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매국 음식점에서

장 면—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박 승히 그림

《일본 경제 시찰단》을 불러 들이려던 남조선 위정자들의 책동은 남조선 인민들의 치렬한 항거에 부딛쳐 좌절되고 말았다.

차단되였다

조 명식 그림

싸우기 위한 《휴업》

리 철히

《당분간 휴업》

《중소 공장 정문들과 매 상점마다 나붙은 쪽지가 이제는 병원 문앞에도 나붙었다.

약품이 잘 들어오지 않는 모양인가?》

건강한 행인들은 혀를 차며 무심히 지나가지만 딱한 것은 시각을 다투는 환자들이다.

《명화 내과 병원》 앞에도 급한 환자들이 앉아 있다.

《휴업이란게 류행이 되였군! 병원들은 또 웬 휴업인고?》

《휴업할 수 밖에 없지요. 신문을 못봤소? 장 면인지 짜장면인지 하는 도적놈들은 의사들의 소득세를 껑충 열 배로 올렸다오, 그러니 벌어서는 고스란히 빼앗기고마는 판이니 경영난에 허덕일 수 밖에 없지요》

《아이유! 열 배라! 정신 나간 놈들이 올려도 분수가 있지, 의사들은 또 환자들을 긁어낼게 아닌가! 그러지 않아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치료비가 또 껑충 오르겠군!》

《이북에서는 병나면 무상으로 치료 받는다는 데 이놈의 세상은 점점 더 생지옥이 되는구려!》

《글쎄 이북에서는 우리 남조선의 환자들도 무료로 치료 받게 하고 무의면을 없애게 하자고 제의하고 있는데 미국놈과 장 면 도당들은 들은 척도 안하고 도리여 의사들의 소득세만 올리니 이런놈의 정치가 또 어데 있겠소? 빨리 남북이 열려야지 생죽엄만 나겠소.》

《좌우간 급한 병이나 보고 휴업해 달라고 병원 문을 두드려 봅시다.》

문이 부서지게 두드리는 바람에 질겁을 해서인지 간호부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의사 선생들이 안계셔요. 오늘 서울시내 의사들이 장 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 1천 여 명이 모임을 가져요.》

《옳소! 항의해야지요. 말 안 들으면 그따위 정부는 두들겨 엎고 백성들끼리 통일해야지! 그저 앉아 있으면 점점 더 갉아 먹으려 들지요. 우리 조선 전업 회사 로동자들은 체불 임금 인상, 8 시간 로동제 실시 등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내 걸고 싸웠는데 그 대부분을 관철시켰소. 《대한 석유 저장 회사》 로동자들도, 인천 부두 로동자들도, 부산 부두 로동자들도 실력 행사의 기세를 높이고 있소. 싸우지 않고 얻는게 있겠소?》

《글쎄, 이대로야 더 어떻게 살겠소? 남북이 협상해서 북의 힘으로 남조선에도 공장을 일궈 세우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줘야지 살 구멍이 열리지…》

《편지라도 서로 교환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소?》

《요새 〈조국 통일 민족 전선〉, 〈민족 자주 통일 중앙 협의회〉랑 결성되구 남조선 각계에서 남북간의 경제 교류, 서신 거래, 인사 왕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주적으로 조국 통일을 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니 우리가 모두 들고 일어나면 실현 안될리가 없지요.》

환자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새 결의를 다지며 돌아 간다.

허나 또 새로운 환자, 급한 환자들이 와서는 병원문을 두드린다. 그들도 간호부나 약제사에게서 사정을 듣고 맥 없이 돌아선다.

《의사들의 소득세를 열 배 올리면 치료비가 열 배 오를건 뻔하지! 그러면 죽을 것은 환자들 뿐이 아닌가! 남북 협상의 제의는 들은척 안하는 놈들이 리 승만의 동상처럼 목을 매워 종로 을지로를 끌리워 다닐 날이 없을 줄 아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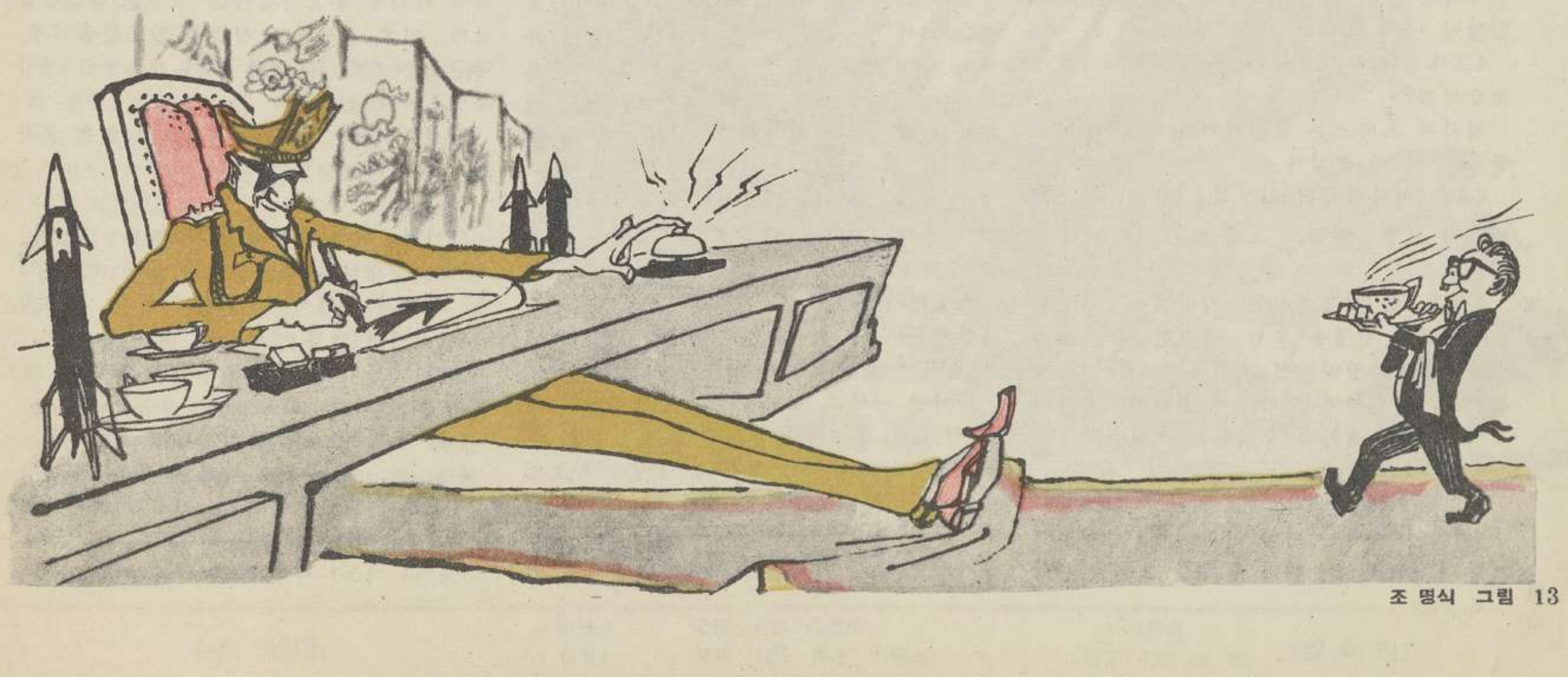
《미국놈들을 이 땅에서 철거시키고 개새끼들도 쫓아 보내야 병자도 살고 의사도 살게 아니오?》

어데를 가나 화제는 이 한 방향으로 돌려지고 있다. 남북 협상에 대한 문제는 그전처럼 수군거림이 아니라 공공연한 큰 화제로 되여 누구나 그것을 금지할 수 없게 되였다.

외세 의존은 멸망의 길

김 동철 그림

장 면이《정치》를 한다



조 명식 그림

걷잡을 수 없다

최 영근 그림

도적의 력사

차 일봉

백악관에서 물러 나게 된 아이젠하워는 안달아 나서 토마스 박사를 불렀다.

《토마스 박사, 부탁한 내 력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력사가 토마스는 굽신거리며 원고 뭉테기를 소중히 내 놓았다.

《음, 〈아이젠하워 집정의 8년사〉라! 거 제목이 그럴듯하군, 그래 어서 그 내용을 말하시오.》

《네네, 맨 첫장에서는 각하께서 언명한 대로 조선 전쟁을 속전 속결한 데 대해서 서술했습죠, 말하자면 조선에서 〈종이범〉이 된 미국의 위신과 강대성의 신화를 되살리기 위해 아이젠하워 공세를 개시한…》

《닥치시오!》

토마스는 자라목이 되였다.

《미국의 력사는 미국 사람에게 공정하게 써야 해, 우린 수 만리 떨어진 조선을 침략하면서도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젠하워 공세〉 세상이 다 아는 망신'감이야. 그 공세는 조선의 골짜기마다를 미국인 송장으로 메웠소, 거저 력사적 인물인 아이젠하워가 인류 전쟁사상 가장 힘 든 전쟁을 속전 속결했다고 써!》

《그러하오나 각하, 정전이 성립된거야 조중 군대가 냅다 미는 통에 혼비백산한 미국이 부랴부랴 도장을 누른게…》

대통령의 욕사발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깨닫게 된 토마스는 아이젠하워의 죄악에 찬 력사에 월계꽃을 씌우기 시작했다.

1954년 세아토 조작을 비롯하여 〈파리 협정〉의 조인, 웽그리야 사변 조작, 조선 정전 협정 유린, 남조선 원자 무장 등 가지가지 호전 행위를 극구 찬양했다. 그러면서도 〈현명〉해진 토마스는 그 《아이젠하워주의》가 1 년도 못가서 중근동 뜨거운 사막의 모래'불에 꺼꾸러 처박힌 사절에는 아예 삐치지도 않았다. 1960년을 맞으며 아이젠하워는 이 해를 《번영》의 해로 되게 할 것이라고 주제 넘게 호언장담 했었다. 이 사실을 토마스가 무슨 력사적 성명이기나 한듯이 추켜 세우자 아이젠하워는 얼마큼 노기가 풀렸다. 그 바람에 토마스는 그만 정신 없이 신이 나서 리승만, 멘데레스, 기시, 솜사너트가 나가 떨어진 이야기며 전날 같으면 《장기쪽의 졸》과 다름 없이 업신 여기던 나라들에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자신이 장똘뱅이처럼 외교 장사를 떠났던 일, 그리고 남미주가 〈뒤'동산〉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으며 우루과이에서 대통령 자신이 최루탄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실을 사진까지 받쳐 주었다고 말했을 때 아이젠하워는 주먹으로 테불을 탕 치며 일어섰다.

《이 놈아, 내 죄악사를 쓰느냐, 론고장을 쓰느냐? 응! 당장 철직이다!!》

력사가는 질겁해서 문'고리를 쥐고 벌벌 떨고만 있다가 아이젠하워가 의자에 풀썩 주저 앉는 것을 보자 조심조심 다가 왔다.

《각하, 이 마지막을 보십시요, 〈대통령 재위 8년간의 최대 용단! 큐바에 대한 외교 단절!〉 어떻습니까. 이러한 조치가 새해 벽두에 또 대통령 하야 직전에 취해졌다는 것이 얼마나 의의 있는 일입니까, 헤헤…》

그리고 토마스는 〈유—2〉 간첩 비행기 사건, 아르비 47 정탐 폭격기 사건, 수뇌자 회의를 파탄시킨 사실과 관련된 국제적 망신, 미국의 위신처럼 바다 속으로만 떨어지는 인공 위성 문제, 최근 라오스 문제 등을 슬쩍 넘겨 치웠다.

《음 그래, 이제 큐바인들이 어쩔줄 몰라 할테지. 그래 제놈들이 미국 없이 살겠단 말인가.》

바로 이 때 비서가 헐떡거리며 뛰여 들어 왔다.

《저저 큐바에서…》

《그래 큐바에서 어쨌단 말이야?!》

《큐바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미국과 싸우겠답니다. 체코슬로바키야가 미국에서의 큐바의 리익을 옹호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공산당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19 개국 대표가 큐바 지지 성명을…》

비서는 말도 채 못맺고 어항의 물을 꿀꺽 꿀꺽 마셨다.

《아이쿠》

아이젠하워는 의자에 풀썩 주저 앉았다.

《오, 불행한 미국이여! 복 없는 대통령이여, 미국의 운명이 내 운명과 함께 서산락일의 신세가 됐단 말인가!》

토마스 박사는 열심히 무엇을 적었다. 그것을 본 아이젠하워는 와락 성을 냈다.

《야, 이놈아, 넌 뭘 적느냐?! 응?》

《예, 예, 저 대통령 각하의 지금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이젠하워 집정의 8년사〉의 마지막 결구로 하려구요.》

《뭐이! 이놈! 아이쿠 하나님…》

식민주의 류행복

최 영근 그림

미국식 《박사》

로철

《적을 소멸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원자탄, 세균탄, 독가스탄, 로케트탄이 모두 동원되여야 한다.》

얼마전에 미국의 포스톤 대학은 이런 내용을 가진 동 대학 연구생 에이즈. 다블류. 홀린의 《박사》 론문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대학 학위 심사 위원회는 《미국 아동의 영양 부족과 사회적 환경》이라는 간. 에이. 펠트의 박사 론문을 《미국의 시대 정신》에 대한 《유해로운 도전》이라고 평가하고 기각하였다.

선서식

최 영근 그림

미제는 일본 군국주의를 부활시킴으로써 그를 아세아 추종 국가들의 병력의 핵심으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는바 일제가 전 세계 인민들의 원수인 미제와 결탁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전체 아세아 인민들에게 고도의 경각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코 시름을 놓았다

1960년 1월에—.

기자: 《미국의 주식 시장 가격이 폭락한 원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아이젠하워 : 《그건 태양에 흑점이 생겼기 때문이요.》

1960년 8월에—.

기자 : 《실업자의 사태가 나고 범죄 건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원인은요?》

아이젠하워: 《오! 젊은이, 걱정마시오. 그건 순전히 기후에 관련된 일이오. 날이 몹시 무덥지 않소!》

1961년 1월에

기자 : 《태양의 흑점도 사라지고 기후도 그만하면 서늘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회, 경제적 혼란은 더욱 심해만 가니 대체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아이젠하워: 《오! 젊은 기자! 당신이 1시간만 일찍 왔드라면 나에게서 훌륭한 대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나는 바로 1시간 전에 케네디에게 대통령 자리를 인계했구려. 그러니 그 사람한테나 가서 대답을 받아 보시요.》

깨여진 방패

전후 3 차에 걸치는 경제 공황을 겪은 미국에서는 1957—1958년의 위기에서 얻어맞은 상처에서 숨돌릴 사이도 없이 다시 새로운 경제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금번의 경제 위기는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금융 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는 《딸라 만능》을 자랑하고 있는 미제의 침략 정책의 파탄과 림종을 말하여 준다.

허 능택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25082
발행 1961. 2. 20 (값 40 전)

침략의 길잡이

미 제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남조선에 다
금 침략의 마수를 뻗치려는 일본 군국주의 잔
들의 책동이 최근 더욱 악랄하게 로골적으로
행되고 있다 무릇 제국주의자들이 남의 나라
침략적 마수를 뻗칠 때는 경제권의 쟁탈을 앞
운다는 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과거 일제의
선 침략도 바로 이렇게 시작되였다는 것을 우
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박 승히 그